

여름철 사육단계별  
환기관리 사례

시간이 흘러 무더운 여름이 한 풀 수그러져 선선한 기운이 아침에 느껴질 때쯤 이 글을 읽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름에도 많은 피해를 보고 지나가고 있다. 여름철 돈사 중에서 특히 무창돈사에서

가. 여름철 대비 환기량이 부족하여 더운 열기가 폭폭 느껴지는 돈사

나. 온도는 32도 이상이 나오지만 들어가서 1~2분 정도 있으면 바람에 의해서 시원한 느낌을 주는 돈사

다. 온도는 32도 이상이 나오지만 들어가서 1~2분 정도 있으면 덥다는 느낌보다는 따뜻한 느낌을 주는 돈사

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 사례를 통해 각 돈사 사례별 사육단계별로 돼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고 지금의 내농장의 상황과 비교하여 내년 여름관리에 대한 점검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가. 사례 1 : 이유자돈사

• 사육기간 : 이유 ~ 2주간

- 돈사구조 : 컨테이너
- 외기기온 최고 : 34도
- 설정온도 : 25도
- 환기량 : 1, 2, 3차 웬 전부 작동

위와 같은 조건에서 아무리 더워도 이유자돈들은 모여서 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자는 덥다고 한다. 정말 덥다. 하지만 돈사내에서 5분만 앉아서 기다려보자고 했다. 기다려보니 땀이 식어가고 있고 유속이 느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유속 측정결과 초당 5~6m 정도의 유속을 나타내고 있었다.(적정유속 초당2m이내) 이런 상태에서 돼지들은 자연스럽게 설사변의 양상을 띄면서 몸에 설사변들이 묻어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은 관리자의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있다. 컨테이너의 적정 사육두수를 얼마나 유지하고 여부이다. 보통 100두 정도를 기준으로 사육하고 있는 실정이지



엄 현 종 원장  
피그월드동물병원  
한국양돈수의사회 총무

만 사육두수가 경우에 따라서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도 농장주와 관리자의 감각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변경된 설정온도를 28도를 해 놓은 상태에서 앉아서 기다려 보자고 했다. 28도를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는 1, 2차웬만 작동하고 있었지만 약한 바람이 느껴질 정도였고 약간 따뜻하다는 느낌이 라고 했다. 외기 기온은 34도에서 말이다.

## 나. 사례 2 : 육성돈사

- 사육기간 : 55일령 ~ 90일령
- 돈사구조 : 개축한 무창돈사(중천장 구조), 피트배기, 벽면배기, 입기 주름관, 입기 덕터
- 돈사높이 : 2.4m
- 외기기온 : 35도
- 설정온도 : 23도
- 환기량 : 1, 2, 3차 웬 작동

적정한 온도 설정이었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다. 더워서 복도의 문을 열어서 관리를 하고 있었다.

여기서의 문제점은 돈사 내의 온도기온차이가 심하게 발생하여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더워서 저녁에도 열어 놓고 관리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복도의 문을 열 경우에는 돈사 내의 온도의 굴곡이 심해져서 아래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 스트레스
- \* 1일 사료섭취량과 증체량이 떨어진다.
- \* 건강이 나빠지면 호흡이 빨라진다.
- \* 설사 증상

## \* 꼬리를 무는 현상(육성/비육)

위와 같은 현상은 특히, 돈사 내에서 1시간 내에 2.77℃ 이상의 차이가 수 차례 반복할 경우에 발생한다. 복도의 문을 열어 놓고 관리할 경우에 복도의 일정부분을 막지 않고 전체를 열면 복도 입구쪽의 온도와 돈사 끝 쪽의 온도의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유의해 관리해야 한다. 특히, 공기열량의 차이는 더욱 심해진다.

## 다. 사례 3 : 임신사

- 사육기간 : 교배 및 전임신기간
- 돈사구조 : 원치돈사
- 돈사구조 : 처마 높이가 2.6m

임신사에서 이 무더운 더위에 특히, 말기돈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 배가 나온 상황에서 옆칸의 모돈들과 배와 등이 딱 붙어서 열기가 밖으로 배출되기도 전에 열기가 몸과 몸이 붙어서 고생을 많이 했다.

웬을 작동 시킬 때 사람이 작동되게 해 놓은 상황에서 퇴근을 해야 하니까 웬을 정지시키고 퇴근하고 출근해 보니 모돈들이 혈떡 거리고 한마디로 난리가 났다. 저녁에 잠시 들어와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약속 시간이 길어져서 못온 것이다. ‘뻥찡깁지’ 생각한 것이 문제였다. 설정온도에서 작동되게 해 놓았으면 얼마나 좋을려나?

위 외에도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다. 내년 여름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 지를 꼼꼼히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 여름의 문제는 과환기로 인한 문제가 가장 많고 입기구의 위치 문제가 그 다음이다. 전문가의 의견을 꼭 참조하시길... **양돈**